

전문가 교칭

기업의 성과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박재흠 이사
삼일PwC(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서비스)

질문 1

지속가능경영, CSR 보고서 등 기업의 성과정보 공개에 대한 글로벌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비재무정보의 공시 의무도 법제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EU지역 내 일정 규모(종업원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 금융기관 등)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따른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Directive)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침 채택 후 회원국이 국내법화 하는데 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회원국 내 대상 기업들은 2017년부터 사업보고서상 비재무정보를 포함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2

지속가능경영, CSR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내 정책 동향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에 발 맞추어 비재무정보를 사업 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미 2011년 제정된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제도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고액 경영진의 보수 공개 등도 비재무정보의 공개제도 확대라는 큰 흐름의 초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바로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의 질적인 측면과 보고범위의 이슈입니다. 기업이 재무성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열사까지 범위를 넓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듯이 비재무정보도 데이터관리가 선행되는 물론 해외사업장과 자회사까지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취약부문은 개도국에 위치한 해외사업장의 근로환경 및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기업들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동향 & 소식

:: 국내

「부정청탁금지법」 공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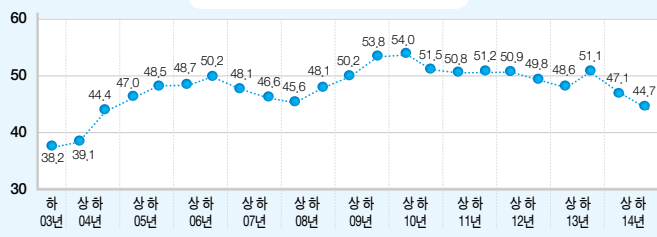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7일 공포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1회 100만원(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후 올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그 동안의 적폐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801>

기업 호감도, 10년만에 최저... "윤리경영 미흡"

대한상공회의소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2월 26일 발표),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하반기(4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기업호감지수 변화 추이



* 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를 합산해 선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으며, 0점에 가까우면 매우 낮은 것이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1518.html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기업 19곳 늘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 수가 지난해 132개에서 올해 151개로 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된 132개사에 19개사를 추가했다. 한편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받는 중견기업(1차 협력사 포함) 비율은 2012년 0%에서 2013년 19%, 2014년 30%, 올해 36%로 늘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2401731>

:: 해외

UNGC, 지난 해 회원기관 657개사 퇴출

UNGC(UN Global Compact)는 2014년 연간 회원기관의 동향을 담은 '2014 Key Facts'를 통하여 회원기관의 퇴출 및 신규가입 현황을 발표하였다. UNGC의 총 회원기관 수는 2014년 말 기준 8,378개(2005년부터 10년간 평균 회원기관 증가율은 약 17.5%) 기관으로 그 중 5,404개 기관이 COP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미제출 회원기관 2,974개 중 657개 기관이 2년 연속 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UNGC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英 의원들 '부도덕 로비' 파문

영국 고위 정치인들이 특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의 로비활동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보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3/20150223004621.html?OutUrl=naver>

오바마,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명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정도 줄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는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 외는 별도로 연방기관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34&aid=0002779582>

글로벌 리포트

싱가포르의 반부패제도와 윤리경영 정책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는 8.4점을 기록, 세계 7위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제일 깨끗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를 억제하려는 싱가포르의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

(CPIB, Co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싱가포르는 1950년대 초반까지도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일본의 점령시기를 거치면서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1959년 리관유 총리의 인민행동당이 집권하고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부패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점차 CPIB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신뢰하게 되었고 현재의 CPIB가 될 수 있었다.

CPIB의 반부패전략은 전체적 접근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3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스토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Q&A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3년 최초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RI-G4)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정의를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를 반영하고,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에게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예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함 내용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현재 위치 및 정책
- 쓰레기 및 오염물질, 온실가스, 하수 배출량
-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지역사회 및 NGO 활동 참여
-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 사회적 이슈 및 반부패정책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표준화하고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비재무적 성과 보고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어 'GRI 가이드라인', 'BEST 가이드라인' 등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ISO 26000' 및 'UNGC'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는 아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지침으로 활용 되는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동기는?

GR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즉 거래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좋은 명성, 신뢰와 존경을 쌓을 수 있으며, 투자자 및 은행들이 지속가능경영 측면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른 중소기업들에 비해 투자매력이 더 커질 수 있다.



☞ 2면에서 이어집니다.

인적인 요소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정부패행위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패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범법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또한 뇌물 적발 가능성을 높여서 뇌물이 "High risk low return" 되도록 하여 국가 내 부정부패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례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예방제도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 그리고 집행과는 별도로 공무원 부패 예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큰 특징 중 하나로 '모든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이 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고리라고 판단하여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공개 의무를 지켰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축적에 대해서는 물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모든 공직자들은 선물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싱가포르 기업들의 기업윤리

싱가포르는 1990년대 Baring Bank를 파산시킨 Nick Leeson의 사례 등이 내부 거래 및 각종 기업관련 사기 스캔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2011년 KPM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20%의 싱가포르 기업이 내부 스캔들에 휘말렸다. 또한 E&Y의 설문조사 결과, 싱가포르 기업경영자 중 3분의 2가 기업의 반부패 관련 대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싱가포르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싱가포르의 Navi Marine Services Pte Ltd사

싱가포르는 세계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드나드는데, 이러한 배에 기름을 공급하는 Navi Marine Services Pte Ltd사의 담당자는 기름의 품질과 양을 조작하는 대가로 42명의 조사관에게 109,804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CPIB에 의해 조사받고 기소되었다. 해당 담당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410,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이 외에도 CPIB의 조사를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7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추가로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정유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외국기업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유업계는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과점 이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가격담합 등 비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경우 사회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슈 1. 가격담합 논란

시장이 과점을 이루고 있으면 담합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더 취할 수 있고 정부당국이 이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담합이 쉽게 일어난다. 불명예스럽게도,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의 3분의 1이 정유사들에게 집중되어있다.

사례 • LPG 가격 담합에 철회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A사와 B사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 협의해 LPG 판매 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시장 상황에 비취볼 때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정하면 다른 정유업체도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매월 말 통보했으며, 실제로 다른 정유사들도 이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0년 4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과징금 2,840억이 확정되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해사
브리핑

제12회 윤경SM포럼 CEO서약식 개최

윤경SM포럼(공동대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종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총괄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윤경CEO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한 기업,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올해 윤리경영의 테마로 '안전경영'을 내세워 기업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기업의 안전경영담당 임원은 서약에 동참하여 윤경SM포럼 선언문 '우리의 다짐 2.0'을 통해 윤리 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윤경SM포럼 산하 '안전경영자문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 지난 2003년 3월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이슈 2. 기름유출 사건

정유업체들의 공장은 주로 수출입에 유리한 위치인 해안가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유류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나 유류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운반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파도를 타고 주변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사례 • 작은 사고가 큰사고로...가름유출

국내 정유업체 A사의 유조선이 부두로 진입하던 중 부두 시설물과 송유관 잔고 등을 충돌해 약 754kl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박 관리감독자의 현장 부재,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피해가 훨씬 커졌고, 사고 직후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 서류 조작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해외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국내 정유사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그 보다 앞선 해외 기업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해외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와 브랜드를 사회 공헌활동에 연관시켜 사회 및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각인하고,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통한 매출 상승과 각 진출국가 내에서의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받았다.

사례 • 미국 석유업체 Chevron사의 사회공헌활동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Chevron사는 환경사회보전 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 업체는 베네수엘라에서 2006년부터 9년 동안 7,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1,690명에게 마케팅, 재무 등을 가르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학대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류디자인과 경영을 가르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이 업체는 2010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전프로젝트의 개발권을 따내기도 했다.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내갈 다자간 포럼인 윤경SM포럼은 발족 후 지난 11회 동안 800여명의 CEO가 서약에 동참했다.



감성메시지

“알리다, 소통하다”

오늘날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경영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변화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기업 명성에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은 웹페이지, 각종 보고서, 미디어 보도, 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의 과거형은 관리이다. 경영의 현재형은 소통이다. 경영의 미래형 역시 소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통(疏通)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기 위함이며, 서로 오해가 없으자 함은 아닐까요?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구들이 있나요?

A 기업들은 한 해 동안 한 기업이 창출한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고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제출된 공적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정책, 성과, 대외공시 등을 평가하여 매년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ESG(Enviro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그리고 환경경영을 평가하며 그 결과물은 ESG 기초자료 및 관련정책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series (DJSI), FTSE4GOOD Series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기업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가지수를 구성·발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 NGO 등에서 존경받는 기업의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UNGC 국제컨퍼런스 (Leaders Summit 2015)

UNGC(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하며,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주최 : UNGC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5월 19일(화) 09:00 ~ 18:00
- 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주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참여

※ 주요 참석인사 :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내외 주요기업 CEO 등
 ※ 오후 일정(14:00~)으로 반부패,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의 4개 분과세션 운영
 ※ 참가 문의 : 02-749-2149, 044-200-7167

제10기 창조혁신 CEO 아카데미

경영전략, 리더십, 인문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
- 일시 : 2015년 3월 26일(화) ~ 11월 10일(화)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지하2층, 남대문로 소재)

2015 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전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Corporate citizenship에 대한 비전, 우수 사례 공유

- 주최 :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년 4월 19일(일)~21일(화)
- 장소 : 미국, 텍사스

Yes 준비! Ok 윤리!

몇 등급이라고요?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윤리경영 퀴즈

다음 중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것은?

- 1) ISO 26000
- 2) ISO 9000
- 3) GRI-G4
- 4) BEST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3번, 홍콩윤리개발센터(HKEDC)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3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이희진님, 하화신님, 최형동님, 이기희님, 송희진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